

사회

張 교육감에 등돌린 '우군' 전교조

광주교육청 촌지 근절 설문에 반발 성명·철회 요구

"모집단 선정 등 문제... 교사들에 상처만 줄 뿐"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키로 한 학부모, 교사 대상 촌지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정책의 파트너인 전교조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모 전화번호 등) 사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등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모교예산 몰아주기' 논란에도 언급을 삼갔던 전교조에서 더 눈길이 쏠린다.

시교육청은 표본집단 선정 방법으로 학급별로 5~7명 학생의 학부모의 연락처를 요구하고, 교사는 학교별로 40대와 50대, 60대 가운데 가장 나이

가 어린 교사를 선정해 이들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번 스승의 날을 전후로 많은 교직원들이 앞장서서 설

수수병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교단에서도 학부모·교사 신상정보 제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견치 않은 반응에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가며 조사방법을 수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시 북구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체육관에서 장애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을 초청해 효사랑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다.

경찰-오락실 업주 '검은 고리' 끊기나

순천지청, 경찰·브로커 등 16명 사법처리

여수 경찰관과 게임장 업주 간 유착비리와 관련, 경찰관·업주·브로커 등 16명이 사법처리됐다.

경찰은 또 E(40)경사 등 경찰관 2명과 게임장 종업원 K(28)씨 등 종업원 9명 등 1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000만원, 업주 A씨로부터 5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36)경장 등 2명도 같은 수법으로 브로커 B씨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4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 A씨는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를 경찰관에게 모두 1억46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에게 2억2900만원을 받은 뒤 단속정보를 대주 경찰관에게 70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E경사 등도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거나 적발시 게임장 설비 등을 압수하지 않는 등 작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K씨 등은 A씨 등 실제 업주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바지사장 노릇을 해온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이용호, 보해저축은행서 담보 없이 142억 대출

광주지검, 형 집행정지기간 작년 3~7월 받아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53)씨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42억원을 담보 없이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인과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를 일으킨 이씨는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07년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 재판과 재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이번 조사를 받기 위해 최근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대출받은 돈을 직접 사업 등에 썼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천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보해저축은행 전 회장 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담보 없이도 단기간에 거액의 대출이 가능했던 배경에 주목하고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유착이 있었는지, 로비 등에 돈이 쓰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또 담보 없이도 단기간에 거액의 대출이 가능했던 배경에 주목하고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유착이 있었는지, 로비 등에 돈이 쓰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18) 김종두



"300만원 더 안주면 경찰 알리겠다"

성매매 20대 女 추가 돈 요구 매수남 신고로 델미

광주서부경찰은 19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조모(여·20)씨를 성매매 알선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박모(36)씨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는데, 100만원이 넘는 보육원비가 없어서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특히 조씨는 성관계 직후 박씨에게 돈을 받고 헤어진 뒤 다시 "현금 3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한편, 조씨는 문자를 받은 뒤 고민하던 박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매매사실이 들똥나 들똥을 잡았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50대 선원 바다 빠져 숨져

19일 새벽 3시 50분께 여수시 돌산읍 대울산항 앞 해상에서 여수선적 51급 새우조망어선 선원 배모(52)씨가 바다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선원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선원들은 경찰에서 "출항하려고 선착장에 도착해 보니 배씨가 보이지 않아 주변을 수색하던 중 어선과 어선 사이 물에 빠져 있는 배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밀린 월급 못받자 시장 여친 집 들어

○광주서부경찰은 19일 자신이 일했던 회사 대표의 여자친구 집에서 금품을 훔친 박모(여·27)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월 17일 낮 1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6 원룸 정모(여·38)씨의 집에 들어가 명품 핸드백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간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정씨의 남자친구가 대표였던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다가 3개월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밀린 월급 3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관평.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피조사자, 경찰관과 진술내용 함께 본다

경제범죄 쌍방향 조사 광주경찰, 시스템 구축

광주지방경찰청은 19일 경제범죄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참고인 등 피조사자의 진술 방어권, 인권보호를 위해 쌍방향 조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경제팀에 보냈다.

쌍방향 조사 시스템은 수사관 데스크에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 피해자·피의자·참고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모니터를 통해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모든 조사를 마친 뒤 피조사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서류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는 조사의 편파성과 공정성 시비가 이는 원인이 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목포중앙병원, 광주유동공공, 광주블루로드 그랜드 호텔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